

리만다양체에서 α -형사영반대칭접속의 쌍대접속과 호상접속

허달윤, 박경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과 기술이 류레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5권 485페이지)

론문에서는 최근 리만기하학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α -형사영반대칭접속의 쌍대접속과 호상접속을 논의하고 α -형사영반대칭접속의 공액대칭조건과 호상접속사이의 등곡률성조건을 새롭게 밝혔으며 α -형사영반대칭접속과 그것의 호상접속의 일정곡률성조건을 증명하였다.

선행연구[1]에서는 리만다양체에서 π -반대칭비계량접속의 쌍대접속과 호상접속을 새롭게 제기하고 그것들의 공액대칭조건들을 밝혔다.

선행연구[3]에서는 비계량대칭접속의 등곡률성문제를 제기하고 곡률텐소르에 일정한 조건을 줄 때 등곡률성이 성립된다는것을 밝혔다.

선행연구[4]에서는 비계량접속의 특수형태인 아마리-첸쵸브접속의 공액대칭성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비대칭접속인 경우는 논의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2]에서는 사영반대칭접속의 특수한 형태인 α -형사영반대칭접속에 대한 사영적성질을 연구하였으나 이 접속의 공액대칭성과 호상접속사이의 등곡률성문제는 논의하지 못하였다.

반대칭비계량접속이 물리적마당에서 소립자의 운동특성을 반영하고있으므로 이 조건들은 물리적마당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주목을 돌려 α -형사영반대칭접속의 공액대칭조건과 등곡률성조건 그리고 이 접속과 그것의 호상접속의 일정곡률성조건을 연구한다.

정의 리만다양체 (M, g) 에서 정의된 사영반대칭접속 ∇ 의 사영성분 ψ 와 반대칭성분 π 가 1차관련 즉 $\psi = \alpha\pi$ 일 때 ∇ 를 α -형사영반대칭접속이라고 부른다.

α -형사영반대칭접속 ∇ 는 $\alpha \in \mathbf{R}$ 에 대하여

$$\nabla_k g_{ij} = -(\alpha - 1)\varphi_k g_{ij} - \frac{\alpha + 1}{2}\varphi_i g_{kj} - \frac{\alpha - 1}{2}\varphi_j g_{ki}, \quad T_{ij}^k = \varphi_j \delta_i^k - \varphi_i \delta_j^k \quad (1)$$

을 만족시키는 접속으로서 접속결수 Γ_{ij}^k 는 $\Gamma_{ij}^k = \left\{ \begin{smallmatrix} k \\ ij \end{smallmatrix} \right\} + \frac{\alpha - 1}{2}\varphi_i \delta_j^k + \frac{\alpha + 1}{2}\varphi_j \delta_i^k$ 으로 표시된다. 여

기서 $\left\{ \begin{smallmatrix} k \\ ij \end{smallmatrix} \right\}$ 는 레비-찌비타접속 $\overset{\circ}{\nabla}$ 의 접속결수로서 크리스토펠기호이며 φ_i 는 1-형식 π 의 성분이다.

α -형사영반대칭접속의 쌍대접속 $\overset{*}{\nabla}$ 의 접속결수 Γ_{ij}^k 은

$$\Gamma_{ij}^k = \left\{ \begin{matrix} k \\ ij \end{matrix} \right\} - \frac{\alpha-1}{2} \varphi_i \delta_j^k - \frac{\alpha+1}{2} g_{ij} \varphi^k \quad (2)$$

이고 호상접속 $\bar{\nabla}$ 의 접속결수 $\bar{\Gamma}_{ij}^k$ 는

$$\bar{\Gamma}_{ij}^k = \left\{ \begin{matrix} k \\ ij \end{matrix} \right\} + \frac{\alpha+1}{2} \varphi_i \delta_j^k + \frac{\alpha-1}{2} \varphi_j \delta_i^k. \quad (3)$$

α -형사영반대칭접속 ∇ 와 $\overset{*}{\nabla}$, 호상접속에 대응되는 곡률텐소르를 구하면

$$R_{ijk}^l = K_{ijk}^l + \delta_j^l \tau_{ik} - \delta_i^l \tau_{jk} + \delta_k^l \beta_{ij}, \quad (4)$$

$$R_{ijk}^l = K_{ijk}^l + g_{ik} \tau_j^l - g_{jk} \tau_i^l - \delta_k^l \beta_{ij}, \quad (5)$$

$$\bar{R}_{ijk}^l = K_{ijk}^l + \delta_j^l \bar{\tau}_{ik} - \delta_i^l \bar{\tau}_{jk} + \delta_k^l \bar{\beta}_{ij} \quad (6)$$

이다. 여기서

$$\begin{aligned} \tau_{ik} &= \frac{\alpha+1}{2} \left(\overset{\circ}{\nabla}_i \varphi_k - \frac{\alpha+1}{2} \varphi_i \varphi_k \right), \quad \beta_{ij} = \frac{\alpha-1}{2} \left(\overset{\circ}{\nabla}_i \varphi_j - \overset{\circ}{\nabla}_j \varphi_i \right), \\ \bar{\tau}_{ik} &= \frac{\alpha-1}{2} \left(\overset{\circ}{\nabla}_i \varphi_k - \frac{\alpha-1}{2} \varphi_i \varphi_k \right), \quad \bar{\beta}_{ij} = \frac{\alpha+1}{2} \left(\overset{\circ}{\nabla}_i \varphi_j - \overset{\circ}{\nabla}_j \varphi_i \right). \end{aligned} \quad (7)$$

식 (4), (5)로부터

$$R_{ijk}^l = R_{ijk}^l + \delta_i^l \tau_{jk} - \delta_j^l \tau_{ik} + g_{ik} \tau_j^l - g_{jk} \tau_i^l - 2\delta_k^l \beta_{ij} \quad (8)$$

이며 식 (4), (6)으로부터

$$\bar{R}_{ijk}^l = R_{ijk}^l + \delta_j^l \alpha_{ik} - \delta_i^l \alpha_{jk} + \delta_k^l \gamma_{ij} \quad (9)$$

이다. 여기서 $\alpha_{ik} = \bar{\tau}_{ik} - \tau_{ik}$, $\gamma_{ij} = \bar{\beta}_{ij} - \beta_{ij}$.

먼저 α -형사영반대칭접속 ∇ 의 공액대칭조건을 구하자.

정리 1 리만다양체 (M, g) 에서 α -형사영반대칭접속 ∇ 에 대하여 텐소르

$$\begin{aligned} V_{ijk}^l &= R_{ijk}^l - \frac{1}{n} \left(\delta_i^l R_{jk}^* - \delta_j^l R_{ik}^* + g_{ik} R_j^l - g_{jk} R_i^l \right) + \frac{2(\alpha-1)}{n[n(\alpha+1)+4(\alpha-1)]} \\ &\quad \cdot \left[\delta_i^l \left(R_{jk}^* - R_{ki}^* \right) - \delta_j^l \left(R_{ik}^* - R_{ki}^* \right) + g_{ik} \left(R_j^l - R_j^l \right) - g_{jk} \left(R_i^l - R_i^l \right) + n \delta_k^l \left(R_{ij}^* - R_{ji}^* \right) \right] \end{aligned} \quad (10)$$

은 접속변환 $\nabla \rightarrow \overset{*}{\nabla}$ 에 관한 불변량이다.

증명 식 (8)을 i 와 l 에 관하여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R_{jk}^* = R_{jk} + n \tau_{jk} - g_{jk} \tau_i^i - 2\beta_{kj} \quad (11)$$

이 식을 j 와 k 에 관하여 빗대칭화하고 식 (7)을 리용하여 β_{jk} 를 구하면

$$\beta_{jk} = \frac{\alpha-1}{n(\alpha+1)+4(\alpha-1)} \left[\left(R_{jk}^* - R_{kj}^* \right) - (R_{jk} - R_{kj}) \right]. \quad (12)$$

식 (12)를 식 (11)에 넣어 τ_{jk} 를 구하면

$$\tau_{jk} = \frac{1}{n} \left\{ R_{jk}^* - R_{jk} + g_{jk} \tau_i^i - \frac{2(\alpha-1)}{n(\alpha+1)+4(\alpha-1)} \left[\left(R_{jk}^* - R_{kj}^* \right) - (R_{jk} - R_{kj}) \right] \right\} \quad (13)$$

이며 식 (12), (13)을 식 (8)에 넣고 정돈하면서

$$V_{ijk}^l = R_{ijk}^l - \frac{1}{n} (\delta_i^l R_{jk} - \delta_j^l R_{ik} + g_{ik} R_j^l - g_{jk} R_i^l) + \frac{2(\alpha-1)}{n[n(\alpha+1)+4(\alpha-1)]} \cdot [\delta_i^l (R_{jk} - R_{kj}) - \delta_j^l (R_{ik} - R_{ki}) + g_{ik} (R_j^l - R_{ji}^l) - g_{jk} (R_i^l - R_{ij}^l) + n \delta_k^l (R_{ij} - R_{ji})] \quad (14)$$

라고 하면

$$V_{ijk}^* = V_{ijk}^l \quad (15)$$

이다.(증명끝)

정리 2 리만다양체 (M, g) 에서 α -형사영반대칭접속 ∇ 가 공액대칭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액릿찌대칭일것이 필요하고 충분하다.(증명생략)

α -형사영반대칭접속 ∇ 와 그것의 호상접속 $\bar{\nabla}$ 사이의 등곡률성조건을 구하자.

정리 3 리만다양체 (M, g) ($\dim M > 3$)에서 α -형사영반대칭접속 ∇ 에 관하여

$$\begin{aligned} \bar{P}_{ijk}^l = & \bar{R}_{ijk}^l - \frac{1}{n-1} (\delta_i^l \bar{R}_{jk} - \delta_j^l \bar{R}_{ik}) - \\ & - \frac{1}{(n-1)(n-3)} [\delta_i^l (\bar{R}_{jk} - \bar{R}_{kj}) - \delta_j^l (\bar{R}_{ik} - \bar{R}_{ki}) + (n-1) \delta_k^l (\bar{R}_{ij} - \bar{R}_{ji})] \end{aligned}$$

는 접속변환 $\nabla \rightarrow \bar{\nabla}$ 에 관한 불변량이다.

증명 식 (9)를 i, l 에 관하여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bar{R}_{jk} = R_{jk} - (n-1)\alpha_{jk} - \gamma_{jk} \quad (16)$$

이 식을 j, k 에 관하여 빗대칭화하면

$$\bar{R}_{jk} - \bar{R}_{kj} = R_{jk} - R_{kj} - (n-1)(\alpha_{jk} - \alpha_{kj}) - 2\gamma_{jk}$$

이며 식 (7)을 리용하면 $\alpha_{jk} - \alpha_{kj} = -\gamma_{jk}$ 이다.

우의 두 식으로부터 $\gamma_{jk} = \frac{1}{n-3} [(\bar{R}_{jk} - \bar{R}_{kj}) - (R_{jk} - R_{kj})]$ 이며 이 식을 식 (16)에 넣어 α_{jk}

를 구하면

$$\alpha_{jk} = \frac{1}{n-1} \left\{ R_{jk} - \bar{R}_{kj} - \frac{1}{n-3} [(\bar{R}_{jk} - \bar{R}_{kj}) - (R_{jk} - R_{kj})] \right\}.$$

이 식들을 식 (9)에 넣고 정돈하면서

$$P_{ijk}^l = R_{ijk}^l - \frac{1}{n-1} (\delta_i^l R_{jk} - \delta_j^l R_{ik}) - \frac{1}{(n-1)(n-3)} [\delta_i^l (R_{jk} - R_{kj}) - \delta_j^l (R_{ik} - R_{ki}) + (n-1) \delta_k^l (R_{ij} - R_{ji})]$$

라고 하면 $\bar{P}_{ijk}^l = P_{ijk}^l$ 이다.(증명끝)

주의 $W_{ijk}^l = R_{ijk}^l - \frac{1}{n-1} (\delta_i^l R_{jk} - \delta_j^l R_{ik})$ 가 ∇ 의 와일사영곡률텐소르임을 고려하면 $P_{ijk}^l = W_{ijk}^l - H_{ijk}^l$ 이다.

여기서 $H_{ijk}^l = \frac{1}{(n-1)(n-3)} [\delta_i^l (R_{jk} - R_{kj}) - \delta_j^l (R_{ik} - R_{ki}) + (n-1) \delta_k^l (R_{ij} - R_{ji})]$ 이고 W_{ijk}^l 은 와일사영곡률

텐소르이다.

따라서 α -형사영반대칭접속 ∇ 에서 1-형식 π 가 닫힌형식이면 $H_{ijk}^l=0$ 이므로 $W_{ijk}^l=\overset{\circ}{W}_{ijk}^l$ 이다.

정리 4 리만다양체 (M, g) ($\dim M > 3$)에서 α -형사영반대칭접속 ∇ 와 그것의 호상접속 $\bar{\nabla}$ 가 등곡률이기 위해서는 릿찌곡률텐소르들이 같을것이 필요하고 충분하다.

증명 $\bar{R}_{ijk}^l=R_{ijk}^l$ 이면 $\bar{R}_{jk}=R_{jk}$ 이다. 거꾸로 정리 3을 리용하면 $\bar{R}_{jk}=R_{jk}$ 일 때 식 (10), (14), (15)로부터 $\bar{R}_{ijk}^l=R_{ijk}^l$ 이 성립된다.(증명끝)

다음으로 α -형사영반대칭접속과 그것의 호상접속의 일정곡률성을 논의하자.

리만다양체 (M, g) 의 임의의 점 p 에서 자름면곡률이 2차원자름면의 선택에 무관제하면 곡률텐소르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R_{ijkl}=k(p)(g_{il}g_{jk}-g_{ik}g_{jl}) \quad (17)$$

이때 $k(p)=\text{const}$ 이면 대응되는 접속은 일정곡률을 가진다고 말한다.

정리 5 리만다양체 (M, g) 가 련결이고 $\dim M \geq 3$ 인 경우에 α -형사영반대칭접속 ∇ 가 일정곡률을 가지기 위해서는 $\alpha=1$ 일것이 필요하고 충분하다.

증명 식 (1), (17), α -형사영반대칭접속 ∇ 의 곡률텐소르에 대한 제2종비양끼항등식을 리용하면

$$\begin{aligned} & [\nabla_h K - (\alpha - 3)K\varphi_h](g_{il}g_{jk} - g_{ik}g_{jl}) + [\nabla_i K - (\alpha - 3)K\varphi_i](g_{jl}g_{hk} - g_{jk}g_{hl}) + \\ & + [\nabla_j K - (\alpha - 3)K\varphi_j](g_{hl}g_{ik} - g_{hk}g_{il}) = \\ & = 2K[\varphi_h(g_{il}g_{jk} - g_{ik}g_{jl}) + \varphi_i(g_{jl}g_{hk} - g_{jk}g_{hl}) + \varphi_j(g_{hl}g_{ik} - g_{hk}g_{il})]. \end{aligned}$$

이 식에 g^{jk} 를 곱하고 축약하면

$$(n-2)\{\delta_i^l[\nabla_h K - (\alpha - 1)K\varphi_h] - \delta_h^l[\nabla_i K - (\alpha - 1)K\varphi_i]\} = 0.$$

이제 다시 i, l 에 관하여 축약하면

$$(n-1)(n-2)[\nabla_h K - (\alpha - 1)K\varphi_h] = 0$$

이며 이 식이 $n \geq 3$ 인 경우에 $K = \text{const}$ 이기 위해서는 $\alpha=1$ 일것이 필요하고 충분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식 (1)로부터 $\alpha=1$ 이면 사영반대칭접속은

$$\nabla_k g_{ij} = -\varphi_i g_{kj} - \varphi_j g_{ki}, \quad T_{ij}^k = \varphi_j \delta_i^k - \varphi_i \delta_j^k \quad (18)$$

을 만족시키는 접속으로서 일정곡률을 가진다.(증명끝)

정리 6 리만다양체 (M, g) 가 련결이고 $\dim M \geq 3$ 인 경우에 α -형사영반대칭접속 ∇ 의 호상접속 $\bar{\nabla}$ 가 일정곡률을 가지기 위해서는 $\alpha=-1$ 일것이 필요하고 충분하다.

증명 식 (2), (17), 호상접속 $\bar{\nabla}$ 의 곡률텐소르에 대한 제2종비양끼항등식을 리용하면

$$\begin{aligned} & [\nabla_h K - (\alpha + 3)K\varphi_h](g_{il}g_{jk} - g_{ik}g_{jl}) + [\nabla_i K - (\alpha + 3)K\varphi_i](g_{jl}g_{hk} - g_{jk}g_{hl}) + \\ & + [\nabla_j K - (\alpha + 3)K\varphi_j](g_{hl}g_{ik} - g_{hk}g_{il}) = \\ & = -2K[\varphi_h(g_{il}g_{jk} - g_{ik}g_{jl}) + \varphi_i(g_{jl}g_{hk} - g_{jk}g_{hl}) + \varphi_j(g_{hl}g_{ik} - g_{hk}g_{il})]. \end{aligned}$$

이 식에 g^{jk} 를 곱하고 축약하면

$$(n-2)\{\delta_i^l[\nabla_h K - (\alpha + 1)K\varphi_h] - \delta_h^l[\nabla_i K - (\alpha + 1)K\varphi_i]\} = 0.$$

다시 i, l 에 관하여 축약하면

$$(n-1)(n-2)[\nabla_h K - (\alpha+1)K\varphi_h] = 0$$

이며 이 식이 $n \geq 3$ 인 경우에 $K = \text{const}$ 이기 위해서는 $\alpha = -1$ 일 것이 필요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 (3)으로부터 $\alpha = -1$ 이면 α -형사영반대칭접속의 호상접속 $\bar{\nabla}$ 는

$$\bar{\nabla}_k g_{ij} = \varphi_i g_{jk} + \varphi_j g_{ik}, \quad T_{ij}^k = \varphi_j \delta_i^k - \varphi_i \delta_j^k.$$

이 접속은 일정곡률을 가진다.

이 접속은 식 (18)에서 π 를 $-\pi$ 로 바꾼 형태이다.

이 접속의 기하학적성질은 선행연구[1]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증명끝)

참 고 문 헌

- [1]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59, 11, 3, 주체102(2013).
- [2]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Natural Science), 2, 2, 3, Juche102(2013).
- [3] S. B. Edgar; Class. Quantum Grav., 10, 2545, 1993.
- [4] E. S. Stepanova; Journal of Mathematical Sciences, 147, 1, 6507, 2007.

주체104(2015)년 11월 5일 원고접수

A Dual Connection and Mutual Connection of a α -Type Projective Semi-Symmetric Connection on a Riemannian Manifold

Ho Tal Yun, Pak Kyong Sil

We defined a α -type projective semi-symmetric connection on a Riemannian manifold and newly discovered its conjugate symmetry condition. And we found the equivalent curvature copies condition between α -type projective semi-symmetric connection and its mutual connection.

Key word: Riemannian manifold